

홍물이 된 예향 광주의 '도시 갤러리들'

시화마을 벽화에 '애정♡표현'
상무공원 조각품 쓰레기 등등
사직공원 작품엔 먼지·거미줄
전남여고 앞 풀리는 광고 도배



북구 시화마을 벽화 낙서



상무조각공원 썩은 물 고인 '콩깍지'



유리타일 벗겨진 '애벌레 가족'



사직공원 '스텝'

동네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지역 도심 골목길, 공원 등에 설치한 벽화와 조각품 등 예술작품이 관리 소홀로 도심 속 홍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주민들의 삶 속에 문화·예술의 향기를 불어넣어 '밝은 동네 좋은 이웃'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설치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와 각 구청이 설치한 해놓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작품들이 훼손된 채 방치되는 등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아쉬운 문화 마인드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서구는 지난 2000년 10월 20일 서구 치광동 상무시민공원 내 상무조각공원(면적 3만 2390㎡)에 국·시비 등 예산 10억원을 들여 백일몽·그늘 속에서·티라노 등 청동·철제 조각품 22점을 설치, 전시했다.

10년이 지나면서 현재 이들 작품 중 상당수는 녹이 슬거나 나사로 얼룩져 있으며 시민들

이 버린 쓰레기로 뒤덮인 조각품도 적지 않다. 절구모양의 '콩깍지'라는 조각품은 아예 녹차라떼와 같은 썩은 물을 담아놓는 '통'으로 바뀌었다.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작품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전국적인 브랜드로 관광객이 된 북구 각 화동 시화(詩畵)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화마을은 쓰레기 투기장으로 방치된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 마을 전체를 문화공간으로 바꾼 전국 첫 사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표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시화마을은 명성과는 달리 일부 몰지각한 이들에 의해 낙서의 장(場)으로 변질

됐다. 시화마을의 주요 작품 중 하나인 벽화엔 '제X♡정X', 'XXX 왔다감', '하얏하얏' 등 낙서로 얼룩져 정상적인 벽화 모습을 보기 힘든 형편이다.

광주시가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사직공원에 설치한 작품들은 반쪽 흉보에 그치면서 찾는 이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다. 현재 5개의 작품이 조성돼 있는데, 허술한 관리에 부실한 홍보가 맞물리면서 "작품인지 몰랐다"는 시민들도 많다.

대표적인 광주 도심 조형물로 전남여고·구 시청 등에 설치된 '폴리'(Folly·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물)도 각종 포스터로 도배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도심 속 작품들이 홍물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는 광주시와 각 구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한 뒤 사후 관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는 13년 전 예산 10억원을 들여 조각공원을 조성하고도 여태껏 땀질 보수에 그쳤을 뿐 전면적인 보수 작업은 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조각품 정비 예산도 고작 940만원을 편성한 게 전부다.

'눈으로만 보세요'라는 팻말이 무색할 정도로 만지고 올라타고 뛰어다니는 등 예술작품에 대한 지역민들의 무신경한 관람 태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1원침 (9007) 김장두



아동성폭력범 신상공개 합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 1항 본문 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싼 분재 흠쳐 밀러죽인 30대

○공장 앞에 놓여 있던 소나무 분재를 흠쳐 집 마당에 보관하던 30대 남성이 도난 분재를 기약하고 있던 눈썰미 있는 경찰에 걸렸다.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37)씨는 난해 11월4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관산구 산정동 한모(50)씨의 공업사 앞에 있던 소나무 분재(높이 1m·수령 20년) 등 분재 3개(60만원 상당)를 훔쳤다는 것

또 최근에는 법원 산하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 4000여만원을 직원 급여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새 야구장 설치 조형물 표절 의혹 짙어 취소 검토

광주시가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설치될 조형물의 이미지가 어둡고, 표절 의혹이 있다는 여론(광주일보 21일자 6면)과 관련, 전문가에서 '일본 코나미사의 괴물 '레기온'의 모습과 유사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유사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유사성이 없다고 결정하면 당선 작가의 협조를 얻어 세 가지 수정작품을 마련한 뒤 시민공개 등을 통해 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수정된 작품을 상정할 계획이며, 반면 일본의 '레기온'과 유사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당선작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순천 초등 여학생 폭행...가해자 13명 확인

오늘 징계 여부 결정

순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폭행·고문 의혹사건(광주일보 10월 25일자 6면)과 관련, 같은 반 학생 13명이 피해 여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사실이 확인됐다.

순천의 해당 초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30일 수 차

례에 걸쳐 휴대전화 동영상과 피해·가해학생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모두 13명의 학생이 한 여학생을 괴롭혔고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직접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동영상에는 가해학생들이 피해 여학생을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 13명 중 3명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나머지 10명은 소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가해학생 13명에 대해서는 지난 24일부터 교장 직권으로 출석을 금지한 상태다. 학폭위는 31일 회의를 열고 가해학생 1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학교측에 빌려준 돈 돌려달라"

홍복학원 산하 교사 등 38명 이홍하씨·학교법인 상대 소송

900억원대 교비를 횡령했던 이홍하씨가 설립한 홍복학원 산하 학교 교사와 직원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3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홍복학원 산하 2개 여교와 직원 38명은 최근 이씨와 홍복학원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다. 교직원들은 학교 측이 운영 자금이 부족하

다고 해 1인당 500만~1억5000만원까지 법인에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은 민사 12부(이종광 부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사원 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산다.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프론트(신입 및 경력) 여 0명
 - 출서빙(신입 및 경력) 남·여 0명
 - 코스관리(신입 및 경력) 남 0명
 - 시설팀 전기안전관리(경력) 남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골프장 유경험자 우대
- 급여
 - 연봉제(면접 후 결정)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
 - * 이력서 우측상단 지원분야 및 희망연봉 기재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061)320-7717
 - 팩 스: 061)320-7710
 - 이메일: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014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신학대학원 신입생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선발하는 학과와 학부과정의 동일계열 출신자만 해당됨.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2013. 11. 11(월) - 22(금)
② 전 형 일: 2013. 11. 26(화) 오후 4:00

【각 대학원 신입생 일반전형】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2013. 12. 2(월) - 10(화)
② 전 형 일

학 과	필기 및 실기고사	면 접 고 사
신학과(Ph.D.)	2013. 12. 13(금) 오전10:00	필기고사 후
목회학과(D.Min.)	-	2013. 12. 13(금) 오전10:00
신학과(Th.M.)	2013. 12. 13(금) 오전10:00	필기고사 후
신학연구학과(M.A.T.)	-	2013. 12. 13(금) 오전10:00
유아교육학과(M.Ed.)	-	2013. 12. 14(토) 오후3:00
음악학과(M.A.)	2013. 12. 14(토) 오후3:00	실기고사 후
신학과(M.Div.)	2013. 12. 13(금) 오전10:00	필기고사 후
교육학과(M.Ed.)	-	2013. 12. 14(토) 오후3:00
상담심리치료학과(M.A.)	-	2013. 12. 14(토) 오후3:00
사회복지학과(M.S.W.)	-	2013. 12. 14(토) 오후3:00
평생교육학과(M.Ed.)	-	2013. 12. 14(토) 오후3:00
한국어교원학과(M.A.)	-	2013. 12. 14(토) 오후3:00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2로 36